

씨을에 대한 해석

‘씨을’이란 말은 백성, 즉 하늘에 머리를 둔 민초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씨을여성회는 가장 낮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people의 뜻인데, 우리 자신을 모든 역사적 죄악에서 해방 시키고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격을 스스로 닦아낸다는 의미입니다.

『을』은 아래아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로 발음하는 것이다.
이 글자 속에 다음과 같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o」은 극대(極大) 혹은 초월적인 하늘을 의미합니다.
「丶」은 극소 혹은 내재적인 하늘, 곧 자아를 의미합니다.
「ㄹ」은 활동하며 물처럼 자유롭게 흐르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씨울 여성회 10주년을 축하하며...

김 민 서

사람의 내음으로 새우젓 곰삭듯 한

씨⁹의 성정

풀뿌리 민초의 의로운 목소리

투 두 독 천상의 아리아로

십년 인고의 세월의 장을 넘어

기쁨과 설렘 울격으로 외롭고 소외된

야윈 손의 따뜻한 빛이 되어

씨⁹머리 없는 놈 쥐어박고

너른 고을에 드리운 그늘 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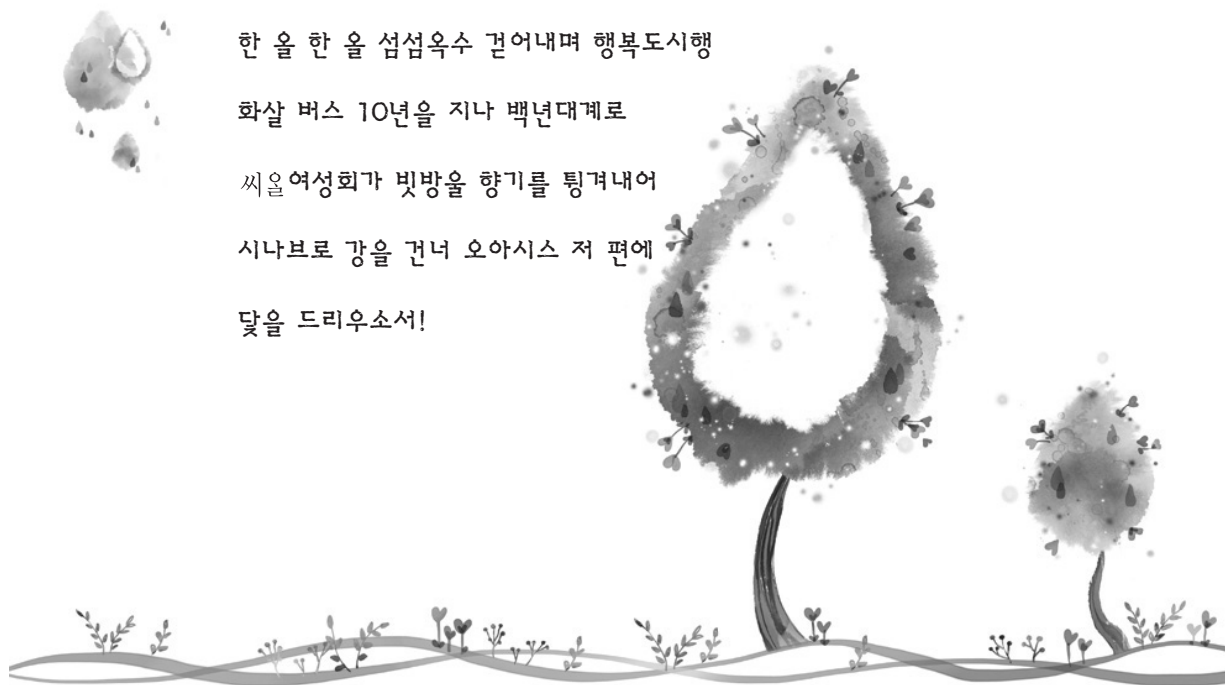
한 올 한 올 섬섬옥수 걷어내며 행복도시행

화살 버스 10년을 지나 백년대계로

씨⁹여성회가 빗방울 향기를 튕겨내어

시나브로 강을 건너 오아시스 저 편에

달을 드리우소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정말 마음에 와 닿는 인사가 되었다.
그 옛날 전쟁과 병마, 기아로 죽어가던 시절 자고 일어나면 죽음이 그들을 맞이했던 그들에게 염려와 걱정 살아있다는 위안의 인사가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도 여러 매체를 통해 수시로 쏟아져 나오는 소식들을 접하면서 만족이 없는 끝없는 소유의 욕심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니 내가 아닌가 반성해 본다.

유난히도 흰 눈이 많이 내린 올 겨울은 낭만을 노래하기 보다는 바람도 차갑고 길도 미끄러워 크고 작은 사고로 우울한 소식에 더 보탬이 된 것 같다. 그러나 탈도 많고 말도 많아 힘들었을 2012년을 돌아보니 어느새 저 뒤에서 잘 가라고 손을 흔들고 있다.
우리에게 부딪히는 많은 고난과 시련도 언젠가는 내게 있어 과거가 되고 현재의 나를 단단하게 연단시켜주는 재료라고 생각하니 조금은 힘겹지만 넘지 못할 산은 아닌 듯싶다.
벌써 씨올여성회와 인연을 맺은지도 8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났다.
처음엔 이름조차 생소했는데 한 번씩 올 때마다 배움이 있어서 좋았고 여성이라는 자존감을 깨닫게 해주고 “소중한 나”를 깨달아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던 씨올여성회를 떠날 수 없어 지속적인 인연을 맺었던 것이 이렇게 긴 세월이 흘러갔다.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통해서 여성의식을 갖게 되어 자존감이 향상되었고 성폭력 전문강사 교육수로 후에는 어릴 적 꿈이었던 학교 강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성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처음 강의 할 때와 3-4년이 지났을 때의 아이들 생각이 달라진 것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게 되었을 때는 교육의 힘이 참으로 크다는 생각에 자부심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강의만 가지고는 아이들에게 지루한 형식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어 고민하던 차에 강사를 위한 교육으로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성교육 인형극을 배우고 공연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 수료수업으로 우리가 만든 인형으로 직접 대본도 쓰고 배우가 되어야 하는 공연을 시작으로 광주 관내는 물론이고 성남과 하남시까지 공연을 하며 무척이나 바쁜 날들을 보냈다.

그리고 보니 그 때 생각이 난다. 무대 좁은 천막 안에서 무선 마이크가 안 되어 마음 졸이고 대사를 잊어버려 당황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하려니 무릎이 아파 쓰러지고 무대, 세트, 음향기기는 왜 그리도 무겁던지... 유난히 몸이 약한 선생님 한 분은 몸살이 나도 대신해줄 멤버가 없기 때문에 링거투혼까지 하며... 그래도 우린 행복해하며 즐겁게 공연했다.



▲ 윤혜경 이사(왼쪽)

장애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나는 장애인 성폭력사건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장애아동과 청소년의 성폭력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다보니 특수학급의 성교육 예방교육도 하게 되었다.

“그 애들이 뭘 알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편견은 편견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특수학급의 남녀학생들 모두 성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은 비장애아들과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문제를 표출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더 공부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고 힘들고 바쁜 와중에도 대학원에서 사회사업을 공부하면서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고 산업체 대학에서 강의도 하면서 나 자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준 씨울여성회에게 늘 감사하고 있다.

아무것도 아닌 평범하고 주눅 들린 한 여성이 교육을 통해 변화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어주고 내 속에 잠재된 역량들을 이끌어내어 부족하지만 사회의 당연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씨울여성회가 또 다른 많은 여성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사랑의 빛을 갹는 마음으로 이사직을 수락하게 되었다.

이 사회의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많은 여성들이 힘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 광주에 초창기부터 고생하시고 이끌어 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13년은 행복했다고 감사했다고 말할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2013년 1월 새해를 맞이하며

윤 혜 경 이사 올림



Contents

여는마당

- | | | |
|------------------------------|--------------|---|
| 01. 〈詩〉 씨울여성회 10주년을 축하하며... | 시인 김민서 | 5 |
| 02. 〈인사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 윤혜경 씨울여성회 이사 | 5 |

씨울한마당

- | | | |
|-------------------------------------|------------------------|---|
| 03. 사무국 | | |
| 〈기획글〉 시행정사무감사모니터링. | 임주현 안산YWCA사무총장 | 5 |
| 시의정지킴이 참관기 | 배영숙 광주여성연대의정지킴이단총무 | 5 |
| 〈특집글〉 씨울여성회 창립10주년 기념 | | |
| 자원봉사활동 후기 - 미래의 청사진이 되어준 씨울여성회. | 배은지 공무원 준비생 | 5 |
| 우선 씨울여성회를 찾아가서 상담... | 김나현 경화여고 1학년 | 5 |
| 사회복지실습 후기 - 나의 지역사회에 대한 무관심... | 진 주 사회복지실습생 | 5 |
| 사무국 활동 | 편집부 | 5 |
| 04. 성폭력 상담소 | | 5 |
| ● 여기는 상담실입니다. | 편집부 | 5 |
| ● 2012년 상담통계 | 편집부 | 5 |
| ● 성폭력예방 홍보- 왜 홍보 활동을 하는가? | 류복연 소장 | 5 |
| ●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고.. | 모숙영 사회복지실습생 | 5 |
| ● 성교육전문강사교육을 받으면서... | 유선영 제10기 성교육전문강사교육생 | 5 |
| | 배영애 제11기 성교육전문강사교육생 | 5 |
| ● 성교육 수업 중 - 성교육 체험관 교육을 받고서... | 광남초등학교 3·4학년 | 5 |
| ● 성교육 수업 중 - 성(性)하면 생각나는 단어와 느낀점 | 광일중학교 3학년 남학생 | 5 |
| ● 장애인 성교육 후기 - 잠시만 외면을 해도 우리아이들은... | 이명규 인덕학교 보건 교사 | 5 |
| ● 여자친구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 이용수 한사랑장애인보호작업장 훈련생 | 5 |
| ● 성인 중증장애인에게 성교육. | 임경화 한사랑장애인보호작업장 직업훈련교사 | 5 |
| ● 상담소 활동 | 편집부 | 5 |

씨울여성회는 모든 폭력을 거부하고 새 생명을 믿어냅니다

씨울여성회

05.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활동	5
한글학교와 고려인	윤영애 씨울여성회 감사 5

참여마당

06. 서가산책	5
07. 씨울여성회 회원소식	5
08. 2013년 사업 · 교육 · 행사계획	5
09. 2012년 후원자명단	5
10. 씨울여성회 하는 일	5
11. 회원가입	5
12. 약도	5

시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의의 및 방법

임 주 현 (안산YWCA 사무총장)

I. 의정평가의 의의

1. 의정평가 활동목적

- 지방의원들이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주민의 권리로 감독하고 독려하자는 것이 의정평가 활동의 목적이다.
- 주권자인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중요한 지방행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통제하는 기능과 권한을 갖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주민들의 주요한 관심사를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들이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의정평가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행정의 비판, 견제, 감시가 가능하다.

2. 의정평가 활동기조

1) 의정평가 활동의 기본 방향

의정평가 활동의 목적은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감시와 독려를 통한 의회의 활성화와 지방행정의 주민 참여 확대에 있다. 따라서 의정평가 활동은 의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역할을 올바르게 정착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정착과 지방의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객관적 활동 기준의 마련

효율성과 형평성 있는 의정평가 활동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의정평가 활동은 권력을 갖는 구체적인 개인과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명예 훼손 등 다양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객관적 척도를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의정평가 활동의 정치적 중립

의정평가 활동은 특정 정당이나 집단, 개인들의 관점에서 행해져서는 안된다. 의정평가 활동은 중립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정당을 구별하지 않고 정책과 지방의원 개개인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중립적 감시와 객관적 평가를 해야 한다.

3. 의정평가 내용

의정평가 활동이란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모든 활동을 감시, 비판, 견제, 평가, 독려하는 일이다. 지방의회의 제도·운영·관행은 물론 각 정당과 개개 의원의 활동이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

다. 어떤 의안과 법안이 다루어지고 있는가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어떤 의안과 법안이 무시되고 경시되고 있는가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의정평가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거 공약의 실천 여부, 불필요한 외유나 행사 참석, 청렴도 등도 일상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주민의 관심이 집중되거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나 당해 상임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1) 성실성: 출·결, 지각, 중도퇴장 여부
 줄거나 탄청을 피우지 않았는지 여부
 다른 의원의 질의나 자치단체 측의 답변 경청 태도
 자료 제출 요구 및 요구 자료의 활용 빈도수
 주어진 질문 시간 활용 여부(시간 초과 또는 잔여 시간 포기)
 폐회 중 의회 활동 참여 여부 및 활동 상황
- 2) 능 력: 정책 능력과 전문성의 수준
 발언 빈도 및 발언의 내용
 조례안 제출 및 조례안 심의(입법 활동)
- 3) 청렴도: 청렴도는 비리 문제 발생시가 아니면 측정 곤란
 정치 자금 확보 구조 및 지출 행태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판공비 사용내역)
- 4) 일상적인 감시: 선거공약 실천 여부
 불필요한 외유나 행사 참석
 의정 활동 내용 숙지 및 사후 확인 여부

II. 의회방청 모니터 활동의 실재

1. 의회방청 모니터 활동

- 의정평가 활동 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의회 방청 및 모니터 활동이다. 지방의원들의 활동과 의안 및 조례안의 처리 과정은 지방의회 회의록(속기록)을 중심으로 신문 보도 내용과 의정 활동 관련 각종 기록 및 서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 분석만으로는 의정 활동을 평가하기는 불충분하므로 본회의 및 상임위 참관을 통해 의정평가 활동을 전개해 나 갈 필요가 있다.
- 의정 모니터 활동은 의회를 방청, 그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일을 말한다. 의정 모니터 활동은 의정평가단의 기본 활동이다. 의정을 모니터하는 사람들에게는 민주 의식과 참여 정신을 길러주고, 의회 정치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정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주권자인 주민의 지방의회 참관은 지방의원들에게 우회적인 압력 수단이 될 것이다. 의원들에게는 무언의 압력을 통해 공부하고 노력하는 의원이 되도록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2. 의회방청 모니터 활동방법

1) 의사일정표를 미리 확보한다.

의사일정이란 의회의 활동 계획을 말한다. 의사국에서는 미리 의사일정표를 작성한다. 의사일정표를 바탕으로 의정 모니터 일정과 계획을 짜야 빈틈없는 모니터 활동을 할 수 있다. 의사국과 의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사 일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도 좋으나 전반적인 일정을 알고,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2) 의정 모니터 팀을 구성한다.

의정 모니터 일정에 따라 모니터 팀을 구성하는데 모니터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를 감안해 세를 과시하고 기록의 공정을 위해 1개 팀에 3인 이상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다. 모니터 요원들의 시간 사정에 맞추어 가능하면 시간별로 모니터 팀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3)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 출석 의원 명단 작성
- 지각 의원, 중도 퇴장 의원 기록
- 상정안건 및 처리안을 기록
- 개의 시간과 폐회 시간 기록
- 발언 요지 기록
- 잘된 질문과 문제 있는 질문 선별 기록: 문제 제기 능력이나 정책 대안 능력
- 타 의원 발언이나 자치 단체 관계자 발언 경청 태도 기록
- 회의진행법 준수 여부 기록

4) 모니터가 끝난 뒤 해야할 일들

- 모니터 후 평가회를 반드시 갖는다
- 모니터 후 방송 내용을 분석하고, 속기록을 검토해서 미비점 보완한다.
- 모니터 후 자치단체가 답변 내용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다음 회기에 그 문제를 의원들이 확인하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 모니터 내용을 홍보한다.

5) 모니터할 때 주의할 점

- 모니터 인원이 적더라도 당당하게 방청, 모니터하라
- 의원들을 감시 감독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의원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효율적인 모니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에 좋다.
- 방청인 발언 제도를 제안하자(완주군 의회 시행)

6) 의정 모니터 활동 시 어려움

- 상임위원회는 밤늦게까지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방청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 회의를 휴회 후 따로 모여 논의하고, 논의 후 결정된 사항을 회의에서 처리함.
- 본회의는 대부분 상임위를 거쳐 올라온 의안 처리의 요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본회의에서의 중요사항은 시정(도정)질의와 답변이다. 시정질의는 미사여구의 나열인 경우가 많고, 답변의 경우는 두리뭉실한 답변이 대부분이다. 또 답변 내용의 실천여부도 미지수이다.
- 의정 모니터시 민감한 사항의 경우 의원과 의회사무국과의 대립사항이 있을 수 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활동할 필요가 있다.

III. 의회회의록 분석방법의 실재

1. 의회평가의 목적

-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실성, 적극성, 준비정도 등을 평가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계기를 만든다.
- 2)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정보를 통해, 차기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에게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아가 지지 및 낙선운동의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3) 의정평가에 대한 시민참여를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킨다. 의정에 대한 시민들이 관심 자체가 의원들을 자극할 수 있다.

2. 의정평가의 범위와 방법

1) 평가범위

- 평가시기: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평가(의장단이 바뀜)
1년 단위로 평가(쉽게 할 수 있음)
- 평가대상회의: 본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회
- 평가대상의원: 평의원으로서의 발언에 한정 해 평가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예결위원장 등은 경우 실제 발언을 통한 의정활동보다 전체 회의 진행이 우선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시 다른 평의원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있음.

2) 분석대상 및 내용 :

- 양적분석 : 지방의원 총발언수 및 상임위 발언수/ 지방의원 출석률
- 질적분석 : 질문 및 발언의 질(대안제시형, 비판추구형 등)

3) 분석방법 : 통계프로그램(SPSS) 활용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등

3. 분석의 한계와 유의점

첫째, 지방의원의 평가는 공약분석, 조례제안, 지역활동등이 종합되어야 하는데 본 의정평가는 지방의회의 많은 활동들 가운데서 시의회 회의록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체적 활동을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의정 모니터, 공약분석 등의 다른 평가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의장 및 위원장의 발언은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원칙적으로 의회내 모든 발언이 평가대상이 되어야 하나 의장 및 위원장의 발언은 회의진행에 우선하기에 평의원과 비교시 불리할 수 있어 공평한 비교를 위해 평의원의 발언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셋째, 회의록 분석에서 나타난 각 평가항목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항목을 제외하고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질문의 양, 질문의 유형, 질문근거, 출석일, 자료제출요구를 선택하여 종합점수로 반영하였다.

넷째, 본 평가의 회의록 분석은 시간적, 기술적 제약으로 의원들의 질문만을 대상으로 하고 공무원들의 반응은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집행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다섯째, 회의록 분석시 개인의 판단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전 교육(워크숍)을 통해 판단기준을 통합하고 동일한 내용을 2명이 분석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4. 회의록 분석의 틀

1) 분석의 기준 <표1> 질문특성변수

분석대항	분석소항목	변 수 값	관련 사항
회의의 성격	회의성격1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성격에 따른
	회의성격2	정기회의, 임시회의	의정활동실적분석
정책적 관심과 지향성	행정기능별 질문분야	일반행정 / 사회복지 / 지역개발 / 교육문화 / 산업경제 / 안전방위 / 기타	의원 관심분야
	질문의 일반적 유형	설명·정보요구형 / 입장표명요구형 대안제시형 / 비판추궁형 전시성 발언 / 기타	- 정책능력 - 비판추궁과대안제시가 같이 해당되면 대안제 시형으로분류
	질문근거	개인적 단순판단 / 개인적 연구 민원/ 공무원/ 법률 / 언론전문위원 / 기타	정보능력
	단순질문인가 보고인가, 입법발의인가?	단순질문 / 보고 / 입법발의 / 기타	정책능력
	출신지역구관련 질문인가의 여부	출신 지역구 관련사항 / 그외 관련사항(타지역구,시전체 관련 사항)	대표성의 성격
의원의 적극성	자료제출요구의 포함여부	자료제출요구 있음 / 자료제출요구 없음	의원의 적극성
	질문의 대상	시장 / 시장 제외 공무원 / 의원	
의원의 자질	질문의 명료성	명료한 질문 / 불명료한 질문	의원의 자질
	질문의 고유성	고유한 질문 / 의미있는 보충질문 앞의 사람과 동일한 질문	
	진행방해성 발언여부	정상발언 / 진행방해성 발언	

시의정지킴이 참관기

배 영 숙 (광주여성연대 의정지킴이총무)

남이섬에서 1박 하는 줄 잘못 알고 갔다. 남이섬은 이번 여름 일관계로 많이 가봤지만, 이른 새벽의 풍경이 보고 싶어 두말 않고 갔는데……. 아! 뉘였다. 그냥 편하고 끼여 여행 다녀 올 목적으로 갔었다.

그런데 며칠 후 바로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여성연대 의정지킴이단과 의원의 간담회가 이뤄졌다. 그리고 매주 회의 참석 했다. 마침 시간이 있어서였다. 그냥 그게 다였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가 행정감사에 참여 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 생각하고 말고 할 째 없이 일정이 이루어졌다. 총무의 역할이 강제적으로 맡겨졌고 단장보다 더 성실한 역할 수행의 몫이 주어졌다.

‘아니 이게 뭐지 어지러워’ 이렇게 참관이 시작되었다.

대체로 문제 제기만 하고 대안 제시 없었다. ‘예’, ‘아니오’ 확실한 답변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서울에 살다온 나로서는 광주시가 매우 불친절하게 느껴졌다. 자세한 안내를 요구 했더니, 설명하려는데 내가 말을 막았다는 반응이 싸늘하고 돌아온 기억이 선명하다. 그래도 그렇지. 요지 없어 장황하게 친절하라고 계속 말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첫날이었다.

지나가면서 ‘토마토 축제’ 니, ‘도자기 축제’ 니 결혼으로 훑고 지나 갔다. 막연히 돈이 많이 들겠다는 생각만 했었다.

실제로 문화체육회관이니, 축제 예산이 얼마니 하는 소리를 들으니

‘아! 내가 낸 세금이었지.’

왜 난 이때까지 무심히 지나갔지. 삼겹살 가격이나 따지고, 통신요금이 왜 많이 나왔는지 상담원한테 따지기만 했었다. 그래 내가 즐길 권리가 있는 축제인데 왜 관심이 없었지.

손에 잡힐 듯 광주시 행정이 귀를 뚫고 들어오는게 아닌가. 재밌기도 하고 신기했다. 하루, 이를 계속되니 몸이 뒤틀리고 준비가 덜 된 탓에 낯선 단어가 튀어 나와 집중이 어려웠다. 즐기도 했다.

얼굴에 지킴이가 된 나는 낯선 지명과, 용어들이 나와서 내용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미사어구로 치하의 말과 부탁조로 일관하는 의원님도 계셨고, 추가 보완 질문이 아닌 중복 질문도 있었다.

피감기관 답변도 장황한 설명이 많고 핑계만 늘어놓고, ‘어렵고 힘들다’ 장황한 설명만 했다. 하겠다, 말겠다. 명확한 표현은 없었다. 기록할 만한 변변한 탁자도 없이 시작되었다.(기자석은 딱하니 커다란 책상도 있두만) 의원들 목소리는 작았고, 특히 답변자의 소리는 뒤에서 들어야 하니 더욱

듣기 어려웠다. 사실 난 직업병 후유증으로 작은 소리를 듣기 어렵다. 가뜰이나 비전문가 시민인데 배려가 아쉬웠다.

‘준비가 더 되어 있었으면 내용도 더 많이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후회가 남는다.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가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더욱 좋겠다.

한 번 참가에도 이렇게 진을 빼는데, 계속하라면 못할 거 같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과 축제 같은 참관을 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일 년 동안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자리이지 않은가?

많은 시민이 와서 들어주고 “어머 정말 알뜰하게 잘 살았네. 야! 우리의원들 너무 일 많이 하는 거 아냐.” 건강도 챙기면서 하시라는 말도 건네고 싶다.



▲ 배영숙, 광주시의회에서..(뒷줄 네 번째)

씨올여성회 창립 10주년 기념

곽라분이 (씨올여성회 상임이사)

씨올가족 여러분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씨올여성회는 2002년 창립해서 2012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여성의 폭력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모든 폭력을 거부하고 새 생명을 일궈내’는 성평등한 평화의 사회를 꿈꾸며 출발했습니다.

2002년 창립할 때만해도 광주의 남성중심문화와 보수 전통문화를 지키는 ‘효의지방’이라는 이미지는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에는 너무 견고한 토양이었습니다. ‘씨올’은 뿌렸으나 그 뿌리를 내리기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었지요. 그러나 이 지역의 씨올과 후원자들, 관내의 지지와 후원에 의하여 지금 이 자리에 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씨올이고, 씨올여성회가 10년을 견디며, 건강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씨올여성회는 이 지역의 씨올들과 함께 고민하며, 때로는 갈등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성숙한 21세기의 최고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의 사회를 일구려는 우리의 목표는 확실히고, 아주 선명한데 갈 길은 아직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 사회의 성 평등한 제도로 정책이 바뀌었으나 우리들의 의식이 전통문화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해학목사, 곽라분이상임이사,문대골목사(왼쪽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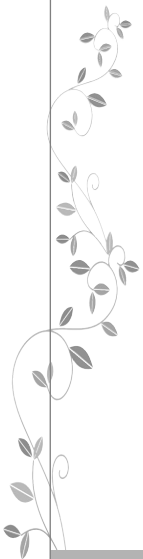
그것은 아직도 다양한 폭력과 차별들이 우리의 삶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반평화적인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이 우리사회에 난무하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환경파괴로 지구가 병들고, 인간은 죽음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씨올이 이 역사의 주체자이고 주인이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역사적 사명을 다 할 때까지 갈 길은 너무 멀리 있는 듯 합니다.

앞으로 10년도 계속 계급차별이 없는 평등, 남녀차별이 없는 성평등,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종차별이 없는 평등, 장애인, 성적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인격적 평등, 나무와 짐승, 벌레 한 마리도 소중이 여길 줄 아는 자연만물에 대한 평등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담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씨올여성회

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평등, 평화, 생명, 사랑, 정의의 사회가 이루어 질 때야 말로 씨울 여성회는 설립이념이기도한 ‘씨울정신, 씨울사상’을 이어받아, 모든 폭력을 거부하고 새 생명을 일구어내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사회와 이 지역과 발전을 위해서 진보적 방향과 공간으로 씨울가족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면서, 2012년 올해 창립 10주년기념에 축하,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씨울여성회를 이끌어 온 실무 활동가들과 자원 활동가들에게 다시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씨울여성회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끊임 없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지지와 격려가 계속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씨울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의 영원한 은인-씨올여성회

김 만 복 (이주여성)

아직도 2008년 3월의 일이 생각난다. 아이를 출산한 기쁨도 잠시, 갑자기 바쁜 프리랜서에서 주부로 전락되는 허무함에서 헤매고 있을 때 아파트 게시판의 한국어교실 소식을 보게 되었다. 평소에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쳐주는 곳을 몰랐는데 이참에 한국어 공부를 할까하고 씨올여성회 부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저를 맞이해 주신 분은 자상하고 말씀도 천천히 하시는 성명옥 센터장님였다. 말씀을 천천히 하시니까 한국말도 귀에 잘 들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저는 한국어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문화도 배우기 시작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센터에서 공부하는 건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저를 비롯한 결혼이민자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중국에서 온 친구들을 위해 통역도 해 주고 보건소의 통역 자원봉사도 열심히 하던 중에 센터장님의 추천으로 광주시의 외국인 시책위원 및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숨은 공로자에 당선되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또 결혼이민자센터의 많은 선생님들의 가르침으로 한국어능력시험 6급도 받고 '여성신문'의 우수 기자상, 경기도의 여성 기·예 경진대회의 다문화가족 백일장의 장려상을 비롯해 제2회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의 다문화여성 수기 공모 최우수상, 제1회 다문화가족 무예대전(본죽)의 은상 등 좋은 성적도 얻었다. 광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선생님으로 활동할 때에는 전국평생학습축제 다문화문해백일장의 우수교사상을 받는 기쁨도 있었다.

지금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으로 저의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과 동력은 무엇일까? 바로 씨올여성회의 선생님들과 성명옥 센터장님 및 항상 저한테 고무격려를 아끼지 않는 한이임 선생님의 사랑이 아닐까한다. 많은 한국 분들이 저를 비롯한 수많은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격려가 우리들로 하여금 더 성장할 수 있는 힘이며 동력이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많이 키워주신 씨올여성회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씨올여성회의 더 무궁무진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파이팅!



▲ 다문화자녀 보육교사



▲ 여성신문명예기자 우수상 수여



▲ 문화체험 나들이

내 인생 일대의 가장 큰 행운

오 마 제 (성교육, 한국어 강사)

내가 씨올여성회를 만난 건 내 인생 일대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씨올여성회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기 때문이다. 열 달의 힘든 산고의 긴 진통 끝에 신비한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씨올여성회도 그러한 산고의 진통을 겪어 지금의 자리에 우뚝 섰으리라...

황무지 땅을 개간하여 피땀 흘려 갈고닦아 옥토의 밭이 되듯, 광주 시민에게 여성의식을 심어 주고, 첫 밭을 내디딘 씨올여성회가 벌써 열 살이라니...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가던 10년 전 9월 어느날 '가정폭력 상담교육'이라는 현수막이 우연히 눈에 들어왔다. 하남시에서 광주로 이사온 그해 너무도 힘든 가정생활에 신물이 나서 이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던 때였다. '그래 바로이거다' 나 자신이 변해야 남편도 변하고 세상이 변화된다. 남 탓을 하기전에 내 탓부터 하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자 라는 신념으로 푹푹 씨올여성회 문을 용기내서 두드렸다. 가정폭력 상담, 성교육전문강사교육을 거쳐서 지금의 내가 있게해 준 씨올여성회가 정말 고마울따름이다. 한국어강사, 성교육전문강사라는 명함을 뿌리게 됐다.

12월이면 한국어 교육 2급 자격증 가정도 끝마친다. 나이들어 공부한다는 것 아휴...

때로는 못마땅해서 소리소리 질러대며 갈등도 많았었지만 10년이랑 세월동안 동거동락하며 지내온 덕에 무척 정이 들어서 씨올여성회가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싫다.

앞으로 씨올여성회에 바라는점은 이제는 더욱더 왕성하게 활성화돼서 남의 집 살이를 벗어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음 하는 바람이다. 반듯한 건물을 지었음 싶다.

매달 꼬박꼬박 지불해야하는 월세여 안녕...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씨올여성회는 영원히 살아남으리!

짓밟혀도 짓밟혀도 끝까지 살아남는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질경이처럼-

부르면 무조건 달려간다.

달려라 하늬 아니 마제...



▲ 이주여성 한국어교육(왼쪽)



▲ 다문화가정 송년잔치(왼쪽 셋째)



▲ 한사랑학교 성교육

내가 받았던 사랑을 조금씩 나누는 삶으로..

윤 혜 경 (씨올여성회 이사)

대전에서 고향인 광주로 이사를 와서 쉬고 있던 중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이 있다고 하여 동생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힘들어하던 시기로 아무 생각도 없이 자격증도 따고 쉬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 인생을 재정비하는 시기여서 씨올여성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집에서 딱히 할 일도 없던 언니가 걱정되어 권유하는 동생의 마음을 뿌리칠 수 없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응하게 되었지요. 씨올여성회와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을 시작으로 성폭력상담원 교육, 성폭력 전문 강사 교육, 성폭력예방 인형극단원 교육 등을 수료하고

당시에 광주에는 성교육 강사가 없어서 성남에서 광주로 강사가 출장을 오던 시기라서 씨올여성회에서 유아, 초, 중, 고 성교육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1년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경험을 쌓으면서 곧바로 성교육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문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에 참여하여 배움의 기회를 갖고 성교육 인

형극을 배워 인형을 만드는 것부터 대본을 쓰고 공연을 하다 보니 광주, 하남, 성남까지 가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장애아동 보육을 하다 보니 장애성교육을 해주는 기관도 드물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알고 oo중학교 특수학급에서 방과 후 활동으로 성교육을 해 달라는 제안을 시작으로 멀리는 안성고등학교까지 출강을 할 정도로 바쁘게 장애우 대상 전문 강사의 역할까지 하



▲ 성교육인형극공연(왼쪽 두 번째)

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 대학원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체 대학에서 강의도 할 수 있게 되어 어릴 때 꿈이었던 학교 강단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나를 발전시켜가는 삶이 참 기뻐했습니다.

무척이나 바쁜 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새 인생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어진게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선택하기보다는 이끌려 가는 삶이었다면 모든 것을 바탕으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내 개인 생활을 위해 살았던 대부분의 시간을 내가 받았던 사랑을 누군가를 위해 조금씩 조금씩 나누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성장하지 못했던 소외된 여성들이 교육을 통해 깨우치고 힘을 얻어 스스로 일어나려고 힘을 때 곁에서 묵묵히 지원해줄 수 있는 씨울여성회가 있음을 알리는 일에 씨울여성회를 아는 우리 모두 힘을 더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곳곳하게 버티어준 씨울여성회에 감사드리고 참으로 더디게 천천히 성장해온 씨울여성회 2013년에는 획기적인 변화와 성장의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중학교 성교육강의



▲ 이사회의 참석

미래의 청사진이 되어준 씨얼여성회

배 은 지 자원봉사자(공무원 준비생)

새로운 장소에 대한 첫 발걸음은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씨얼여성회 역시 나에게 작은 설렘과 떨림의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방문 목적은 매우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봉사를 위한 방문이 아닌, 시험의 자격조건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방문했기에 씨얼여성회에서의 업무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 못한 채 봉사의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사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저는 광남초등학교에서의 성교육체험관을 함께 하면서 앞으로 해야 할 봉사에 대해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보조로 참여하면서 성교육을 통해 저 역시 간과했던 것들을 다시 배우고, 또 체험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교육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교육 체험과, 인형극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씨얼여성회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씩 배워가며 업무에 익숙해졌을 쯤 삼육재활학교에서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성교육 보

조강사로 참여하던 저에게 유독 한 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던 학생은 프로그램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으로 참여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이 어폰으로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그 학생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던 태도와는 달리 낯선 저를 거부감 없이 받아주는 학생의 태도에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 제게 그 학생은



▲ 친구죄폐지 환영 시위-보건소앞(오른쪽 두번째)

‘어차피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낳지 않을 건데 왜 이런 체험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자신에게는 필요 없는 교육일 뿐이다.’라고 일축해버렸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못했고 체험이 끝나고도 계속 그 학생의 말이 뇌리에 남았습니다.

자신이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을 포기하고 체념하는 모습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는 태도에 저는 그 학생에게 뭐라 대답을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장애를 가져도 자신의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 학생도 알고 있었지만, 사회의 시선과 편견에 너무나 당연시하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아마 그 학생뿐 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많은 장애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여성들이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외부환경으로 인해 포기하며 우리의 이웃,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작은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곳이 이곳, 씨울여성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리 주위의 많은 이웃들이 방문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아마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잘 몰라서, 혹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 쉽게 방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 봉사를 하기 전까지 지역사회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줄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현재 씨울여성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꾸준한 캠페인을 통해 ‘씨울여성회’ 이름을 알리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역사회 전체의 파급력은 미흡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또한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씨울여성회의 새로운 사업과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신문이나 뉴스에서만 다뤄지는 남의 이야기라 치부되는 지역사회의 안일한 사고의 전환, 역시 씨울여성회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일어 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역할, 그리고 그런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씨울여성회의 역할 역시 지역사회에 씨울여성회를 알리게 되는 일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의 짧은 경험이었지만, 씨울여성회에서의 추억은 부족한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청사진을 그리게 해준 잊지 못한 경험과 가르침을 주었고 이를 통해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준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씨울여성회의 뜨거운 행보는 앞으로 광주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소외받는 여성문제, 학교폭력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에 앞서 나아가는 꾸준한 발자취를 남길 것이며, 그런 씨울여성회의 행보에 밝고 희망찬 미래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씨올여성회를 찾아가서 상담을...

김 나 현 자원봉사자(경화여고 1학년)

8월 6일, 고모의 소개로 씨올여성회라는 곳으로 봉사활동 하러 갔다. 기대감 반 긴장 반으로 갔지만 모두들 친절하게 대해준 덕분에 빠르게 적응해 갈 수 있었다.

내가 할 일은 성평등에 대한 판넬을 만드는 것이었다. 학교에서 조별로 만들기 시키면 무조건 내 차지가 되었기 때문에 만드는 건 자신 있었다. 그러나 판넬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글씨 크기부터 시작해서 우드락과 프린트한 용지의 색에 맞춰 자투리 우드락에 입체로 만들기, 그 색상과 잘 어울리도록 조합하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엔 글씨를 치고 사진을 찾아내어 출력했다. 그런 다음 제목과 부제목은 글씨대로 둥글게, 내용은 직사각형으로 잘라내어 우드락에 맞춰 붙였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성평등과 성폭력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다니시는 만큼 신경써줘야 했기 때문에 비틀어지지 않도록, 또한 복잡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몇 번이고 수정한 끝에 완성된 ‘성평등 판넬’ 전부 내 손으로 만든거라 무언가가 뿌듯했다. 음...내 생각대로 완성됐어도 뭔가가 부족함을 느낀 건 괜한 걸까?

여성회라는 것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같은 것을 상담해 주는 기관이라서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어색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서 인지, 아님 여성회라는 것에 처음부터 거부감이 느껴진 것인지 몰라도 나에게는 모두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과 관념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산산조각났다. 씨올여성회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을 당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상담하고 찾아올 수 있는 곳이다. 자신이 당한 일에 정확한 판단과 상담, 상처입은 마음의 치료를 해주는 곳이다. 절대 꺼려할 곳이 아니다.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상담할 기회가 없었지만,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광주시민이라면 언제든지 상담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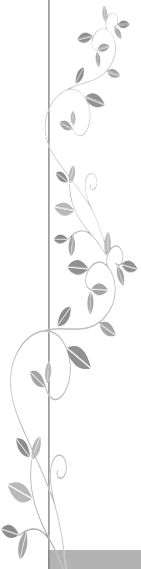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하면 다른 기관이나 부모님께 상담을 하기는 커녕 마음 속에 담아두기만 해서 활동적이 아닌 은둔형 외톨이나 대인 기피증이 올 수도, 될 수도 있다. 그런 건 절대 심적으로, 신체적으로 좋지 못하다.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해서 좋지 못하고, 신체적으로 당한 몸은 더 좋지 못하다. 담아두기만 하면 뭐할 것인가, 그저 생겨버리는 또 하나의 영구적인 정신적 장애일 뿐인데.

그렇게 담아두기만 하지 말고 씨올여성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은 어떤가. 위에서 말했듯이 나는 상담할 기회가 전혀 없었을 뿐더러 상담할 기회가 왔다고 해도 씨올여성회의 존재 여부를

몰랐기 때문에 상담은 전혀 받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이 곳에서 느낀점은 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씨울여성회를 찾아가서 상담을 할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 여성회는 우리가 기피해야할 곳이 아니다. 우리가 당한 수치스러운 일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상담해주고 심적 치료를 도와주는 고마운 기관이다. 어린이들에게는 성폭력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고,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는지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편안한 친구같은 존재로 상담해주는 곳이다.

우리는 여성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선적으로 생소함이라는 느낌부터 들 것이다. 그 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곳인지 또는 어떤 것을 해주는 곳인지.

하지만 그런 생소함이라는 겉껍질을 훌훌 벗어던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나의 지역사회에 대한 무관심

진 주 (사회복지실습생)

여러 매체를 통해 안타까운 일들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도 저런 말도 안되는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점점 그런 사람들을 일회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와주어 다시는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나 사회적으로도 좋을텐데...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마음에서 출발하여 생각이 아닌 내가 직접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싶었고 그를 실천하고자 사회복지자를 공부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공부가 실습을 해야할 때가 되었고 어디에서 공부를 해야할지 고민하다 씨얼여성회를 알게 되어 실습을 하게 되었다.

사실 광주에서 10년동안 살면서 씨얼여성회가 있다는 것을 실습을 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씨얼여성회가 4년 전 반년정도 살던 아파트 옆에 있는 건물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의 지역사회에 대한 무관심에 부끄러웠다. 이 부끄러움은 단순한 애교에 불과할 뿐이었고, 내게 있어 씨얼여성회에서의 현장실습은 반성과 후회, 깨달음 등 많은 감정을 갖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몇 달 전 영화 ‘도가니’로 인해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습을 처음 시작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처럼 나 역시 관심을 가졌었는데 정작 중요한 성폭력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부끄러웠다. 하지만 실습을 하면서 성폭력 관련 자료도 검색하고, 성폭력 관련 홍보교구도 만들면서 성폭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씨얼여성회는 성폭력 상담소이지만 다른 여러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었다. 그래서 성폭력 뿐 만 아니라 성교육에 대한 지식도 습득할 수 있었는데, 성폭력의 가장 좋은 예방은 성교육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향후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갖게함으로써 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이다. 실습 중 광주 퇴촌면 장날에 가서 씨얼여성회와 성폭력 예방에 대해 홍보활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일면을 보는 것 같았다. 한때 영화 ‘도가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 대한 큰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러 단체의 다양한 지원과 홍보가 이루어지고 우리사회가 성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씨올여성회는 다문화가정의 여성에게 한국의 언어와 문화,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광주에 외국인 노동자만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다문화가정도 많다는 것을 씨올여성회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 TV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해 알았지만 이렇게 내 주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의 지역사회에 대한 무관심에 또 한 번 놀랐었다.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나아졌을 진 몰라도 아직까지 좋은 편은 아니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길이 많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나의 무관심 때문인지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씨올여성회는 여성을 위한 기관이다 보니 다문화가정의 여성만 왔는데 실습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 생각은 스승의 날을 맞아 베트남여성들이 베트남 음식을 해서 같이 먹으면서 굳히게 되었다. 이렇게 함께 모여 같이 활동하면 다른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세계화 시대에 더욱 발맞춰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닌 한국인들도 그들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생겼으면 좋겠다. 씨올여성회에서 실습하는 동안 다문화가정의 여성들과 선생님들을 보며 가족같은 느낌을 받곤 했는데,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다양한 다른 문화를 쉽게 접하고 체험하다보면 내가 씨올여성회에서 느꼈던 것처럼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실습을 통해 사회복지를 공부만 할 때와는 다른 복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 지금보다 복지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될 텐데 아직 우리나라는 복지지원이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복지에 대한 정책적·경제적 지원과 홍보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리고 씨올여성회에서는 소수의 인원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지원이 생겨 씨올여성회가 더 큰 발전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홍보와 인력충원을 통해 여성을 위한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과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아직까지도 소외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성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실습기간 동안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도움을 준 씨올여성회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아기 심장소리

정 지 윤 (광남초등학교 3학년)

두근두근도 아니고
쿵쿵쿵도 아니고
이상한 아기의 심장소리

츠르르르르

츠르르르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마라카츠를 흔들고 있는 것 같다.



* 10월 광남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한 3-4학년 성교육체험관 교육 임신복 체험 후
느낀점을 자유롭게 시로 표현하였다.



▲ 창립10주년기념, 11월 2일



▲ 창립10주년기념 축하공연, 초월시립어린이집 교사



▲ 성폭력예방, 광주경찰서와 MOU체결하다. 9월 13일



▲ 광주여성연대, 의정지킴이단 발족, 7월25일

사무국 활동

- 사무국 조직활동
 - 제 10차 정기총회
 - 씨울여성회 창립 10주년 기념
 - 독서토론 모임
 -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시위
 - 씨울여성회, 광주경찰서 업무협약(MOU)체결
 - 사회복지 및 평생교육실습
- 사무국 연대활동
 - 광주여성연대 - 7월 여성주간행사 '의정지킴이단 발족'
 - 2012년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의정지킴이' 활동
 - 경기여성연대 - 2012년 선택과 변화를 위한 여성정치교육
 - 광주시 - 제 3회광주시사회복지박람회

사무국 조직활동

■ 제 10차 정기총회

제 10차 정기총회는 2월7일(화, 오후4시) 약 50명 참석으로 씨울여성회 교육관에서 진행하였으며, 사업, 회계 예결산 승인과 씨울여성회 신임이사로 윤혜경 회원이 위촉장을 받았다. 윤혜경 이사는 2005년 씨울여성회가 진행하는 가정폭력·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을 받으면서 회원, 자원봉사활동 뿐 만 아니라 성교육전문강사, 성교육인형극전문과정까지 이수하면서 전문강사 활동을 지속하였다. 현재는 초월시립어린이집 교사로 재직중에 있다.

씨울여성회 창립자 궤분이 상임이사는 전년도 성폭력 상담소장직을 퇴임하면서 씨울여성회 상임이사 위촉장과 류복연 사무국장이 성폭력상담소장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더 큰 열정으로 활동을 기대하며, 지면으로 축하합니다.



▲ 박해권 광주뉴스대표



▲ 축하인사

■ 씨울여성회 창립10주년 기념

광주지역에 여성 인권 씨앗을 뿌린지 10년을 맞이하였다. 우리사회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며, 성 평등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전심전력을 쏟았던 10년. 광주에 터를 닦은지 창립10주년이 되는 씨울여성회를 축하하기 위해 약 150명의 회원, 자원활동가, 유관단체, 지역의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다. 11월2일(금, 오후5시-8시) I, 웨딩컨벤션홀에서 오혜란 사회로 진행한 1부 기념마당은 김광휘 이사장, 궤라분이 상임이사 인사로 오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성규광주시의장, 남재호광주문화원장, 양해경(사)사람과 평화대표가 축하의 말과 그 외 전국성폭력상담소 이현숙상임대표, 김미순공동대표, 박성애동두천성폭력상담소장, 김정민포천성가정상담소장, 서울여성의전화이화영 소장이 축하메세지에 감사드린다.

2부 씨올마당 ‘내가 만난 씨올여성회’ 코너는 씨올여성회와 10년을 함께 성장한 여성이며,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김만복 다문화가정 부모교사(이주여성-중국), 소미순시의원, 오마제성교육(한국어)강사, 윤혜경 이사가 자리를 풍성하게 해주었다.

3부 축하마당에 더욱 자리를 빛낸 소정섭학생 노래, 초월시립어린이집 교사들의 우크렐라 연주, 이종희 선생의 축하기도 퍼프먼스에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



■ 독서토론 모임

독서토론반 모임은 매주 수요일 씨올여성회 교육관에서 함석헌 선생이 쓴 책 ‘뜻으로 본 한국역사, 뜻으로 본 세계사’ 광분이, 권숙향, 김영숙, 김수영, 류복연, 양경애, 최혜자, 한숙희선생이 참석하였다. 특히 최혜자 선생은 토론을 위한 많은 자료를 찾아오셔서 참석자들의 지적 풍요로움을 제공해주셨다.



▲ 최혜자선생(왼쪽 중앙)

■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시위

최근 전국적으로 여성, 아동 폭력, 살해되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7월24일(화, 정오)전국적으로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시위’를 광주보건소 앞에서 씨울여성회, 광주열린상담소, 광주시청, 자원활동가 등이 참여하였다.



▲ 여성폭력근절시위 - 광주보건소 앞

■ 씨울여성회, 광주경찰서 업무협약(MOU)체결

지역에서 성폭력 예방·성범죄공동대응 및 성폭력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 상담, 의료, 법률지원, 쉼터 연계함으로써 성 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해 ‘씨울여성회·광주경찰서 업무협약 체결식(MOU)’을 9월13일(목, 오전9시)광주경찰서에서 진행하였다. 참석자는 광주경찰서는 이문수서장, 15명과장 및 형사와 씨울여성회는 류복연 소장, 이사(정인숙, 윤혜경, 윤종설, 박혜영)박경애 자원활동가, 김영숙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 성폭력예방 업무 체결식, 9월 13일, 광주경찰서

■ 사회복지 및 평생교육실습

예비 사회복지사와 평생교육사 과정을 공부하는 대학생은 교과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무를 경험함으로써 전문적인 자질을 도모하고자 1년간 12명이 사회복지 및 평생교육을 실습하였다. 본회에서 배운 현장경험을 잘 살려 전문적인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가 되길 기원합니다.



▲ 다문화가정 아가돌보기
(박경애, 서울사이버대 평생교육실습생)



▲ 광주시푸드뱅크기관방문



▲ 성교육 교구만들기
(서민지, 최희선, 동원대 사회복지실습생)

사무국 연대활동

■ 광주여성연대

- * 제 1차정기총회 : 최미정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의 격려말과 함께 2월22일(수, 오후4시30분) 서울여성회 교육관에서 회원 25명 참석하에 진행했다.
- * 제2회 광주3.8여성대회 기념 : 3월29일(목, 오후1시30분-3시30분)문화웨딩컨벤션홀에서 약 50명 참석으로 진행하였다. 1부는 축하, 성평등 디딤돌, 걸림돌 발표, 3.8여성의날 영상물상영과 제2회 광주3.8여성대회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2부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합동 토론회 개최에 국회의원 후보자 소병훈(민주통합당), 박일등(무소속)후보가 참석하여 공약 발표와 상호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 (중앙) 소병훈 후보, 박일등 후보



▲ 3인 공동대표 정인숙, 객라분이, 김수영(왼쪽부터)

● 7월여성주간행사 '의정지킴이발족' 과 단원 양성교육

7월19일부터 광주여성연대는 경기도와 경기여성연대지원을 받아 씨올여성회 교육관에서 '의정지킴이단' 양성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정인숙단장, 배영숙총무를 중심으로 '광주여성연대 소속 의정지킴이단'을 발족하는 출범식을 가졌다. 의정지킴이단은 광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방청활동을 위한 모니터링 교육이 7월부터 11월까지 성인지적인 관점에 중심을 두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 광주여성연대,의정지킴이 발족, 7월25일



▲ 여성복지와인권 강의 소미순광주시의원(앞줄왼쪽두번째)



▲ 지역경제와여성 강의, 장형옥 시의원, 시의원사무실(중앙)



▲ 여성과정치참여 강의, 홍미라 하남시의원

성평등 성평등정책동향, 접근방식변화(강선미 하랑성평등연구소장), 지방행정과 지방재정 이해(오관영 좋은예산센터상임이사), 의정평가 모니터링 의의와 방법, 풀뿌리(지역) 여성운동(임주현 안산YWCA사무총장), 여성문제와 정책(최미정 경기여성연대상임대표), 지역경제와 여성(장형옥 광주시의원), 여성과 정치참여(홍미라 하남시의원), 커뮤니케이션 리더쉽(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 여성복지와 여성인권(소미순 광주시의원)

● 2012년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의정지킴이 활동 실시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11월23일부터 11월30일까지 진행하였다. 지난 7월여성주간에 발족하여 그동안 교육을 받은 12명 의정지킴이는 행정사무감사 방청 목적 및 중요성은 개별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 전문성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자질 및 시민의 대표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책임성과 광주시민의 눈으로 얼마만큼 시행정을 감시하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행정사무감사 의정지킴이 활동에 곽라분이, 김민서, 김수영, 구정근, 박경애, 배영숙, 배영애, 오마제, 유선영, 장소운, 조형자, 최영란선생이 수고했다.

● 2012년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청 결과 언론보도 - 광주뉴스, e광주타임즈, 시티뉴스 1월3일~7일)



▲ 2012년광주시행정사무감사개회날, 11월23일, 광주시의회



▲ 의정지킴이단 회의, 광주시의회

● 1박2일 역량강화 · 쉼 · 여행 가을워크숍

연대 및 조직을 강화하고, 회원간 소통을 하기 위해 1박2일 역량강화 · 쉼 · 여행 가을워크숍이 10월26일~27일 남이섬을 다녀왔다. 쉼 명상춤은 이종희 선생, 톡톡 이야기마당은 최미정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가 수고하셨다.

● 집단 성폭력사건 규탄 기자회견하다.

지난 4월 중순경 지역 내 K중학교 선후배 집단 성폭력이 발생했으나 6개월 이상 학교, 교



▲ 이야기특독마당, 최미정경기여성연대상임대표, 10월26일



▲ 심과 함께 남이섬에서... 10월27일

육지원청은 피해자를 보호조치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는 이중삼중의 피해, 학교 내 폭력 발생 등 안일 무능으로 일관된 학교장, 교육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1월29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하였다.

■ 경기여성연대 연대 활동

● 제 16차정기총회

2월27일(월,오후3시~5시)경기도여성비전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했으며, 광분이공동대표, 류복연소장이 참석하였다.

● 제 8회 3.8회 경기여성대회

3월7일(수,오후6시)수원역에서 진행했으며, 김영숙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 경기도 지원을 받은 2012년 선택과 변화를 위한 여성정치교육

준비 워크샵은 5월31일~6월1일(목,금요일 오후2시~)광분이공동대표, 김수영대표, 류복연소장, 김영숙사무국장이 참여했으며 경기화성덕산스포텔에서 진행했다. 이 사업은 지역여성단체와 활동가 역량강화와 여성정책을 바로 알고, 여성의 시민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교육이 7월19일 서울여성회교육관에서 15명참석으로 진행하였다.

▶ 광주시사회복지협의체 활동

● 여성분과 회의 참석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1회 여성분과 회의에 김영숙사무국장이 여성분과 총무로 참석하였다. 2012년 여성분과 사업 '광주시를 빛낸 여성이야기' 책을 발간하고 출판기념회도 12월22일(금,오후4시)광주시여성문화센터에서 가졌다.

● 문화분과 회의 참석

3월부터 6월까지 권숙향상담원이 문화분과 분과장으로 참석하였으며, 2012년 문화분

과 사업은 인형극과 마술쇼로 노인요양시설을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진행했다.

● 민·관합동연찬회 참석

민·관변단체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실무자들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친목도모를 위해 6월27일 곤지암리조트에서 진행했으며, 광분이상임이사와 권숙향상담원이 참석하였다.

● 2012년 제3회 광주시사회복지박람회

제3회 광주시사회복지박람회가 10월5일(금)청석공원에서 진행했으며, 본회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전시, 배포 뿐 만 아니라 성폭력예방을 위한 성교육인형극 공연, 성체험관 견학을 실시했다. 이에 성교육전문강사, 자원봉사자, 회원, 사회복지실습생이 수고하였으며, 감사드린다.



▲ 청석공원에서 자원활동가와 홍보활동(10월 5일)



▲ 성교육인형극 · 성체험관교육(10월 5일)